

도시를 숲으로, 일상을 정원으로

10년간 생태 혁신, 국가대표 녹색 정원도시로

익산시가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10여 년간 이어온 끈질긴 생태 혁신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숨 쉬는 '대한민국 대표 녹색 정원 도시'로 완벽하게 체질을 개선했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익산이 지난 10년간 시민들과 함께 일궈낸 생활권 녹색 인프라 구축 성과와 함께 미래 정원 도시로의 도약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간 시는 '도시를 숲으로, 일상을 정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도심 전역의 녹지축을 연결하고 주민 참여형 정원 문화를 정착시키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

는 등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가꿔 왔다.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초과 달성... 도심 녹지축을 혁명하다

익산 생태 전환의 큰 실천 과제 중 하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이었다. 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과 민간이 손을 잡고 총 510만3,731주의 나무를 식재하며 목표를 가볍게 넘어섰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축구장 약 33개 규모에 달하는 26개소(23만4,000㎡)의 도시숲을 도심 한가운데 조성했다.

특히 오송누리숲길 등 산업단지외 폐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한 기후대응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익산의 든든한 허파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전 조명까지 확충해 야간에 도 안전한 시민 안식처로 진화했다. 여기에 평화육교에서 목천교까지 이어지는 대간선수로변 3.5km 구간의 명품 가로수길, 왕궁 국가식품클러스터 대로변 청단풍 거리, 남창초·묘현초 등 8개소에 조성된 '자녀안심 그린숲'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이자 시민들의 걷고 싶은 일상 신책로가 됐다.

용안생태습지부터 아가페까지... 랜드마크가 있는 정원 도시 구현

시는 도시를 넘어 익산 전역을 정원 문화로 물들이고 있다. 현재 북부권 생태 관광의 핵심 거점이 될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총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 금강 수

500만 그루 나무심기 총 510여만 그루 심어 23만4000㎡ 도시숲 조성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신홍공원 랜드마크 민간공원 특례 대성공 등 '정원 속의 익산' 완성

변의 천혜 경관과 백제 문화를 융합한 8개 주제 정원을 2026년까지 완공. 전북을 대표하는 생태 힐링 명소로 키워 낼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 2021년 전북 제4회 민간정원으로 등극해 배일을 벗은 황등면 '아가페정원'은 메타세쿼이아 숲길의 비경을 무기로 지난해에만 3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익산의 대표 정원으로 우뚝 섰다.

아울러 4년간 도심 유휴지 59개소에 조성된 '우리동네 어울림정원'은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생활 속 정원 문화의 모범 사례가 됐다.

신홍공원의 랜드마크 변신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성공 안착

상수원 보호를 위해 50년간 닫혀있던 '신홍공원'은 도심 속 명품 힐링 공간으로 대변신했다. 시는 3.8ha 부지에 24만 주의 꽃과 나무를 심어 무지개정



익산시청 도시숲



꽃바람정원



소라공원



송학동 도시숲



용안생태습지

김형훈 익산시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지난 10년간 시민들과 함께 땀 흘려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꾼 결과, 익산은 이제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생태 강소도시로 자리잡았다"며 "그동안 다져온 확보적인 정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민 누구나 집 문을 열면 숲과 정원을 만날 수 있는 품격 있는 녹색 안심 도시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제13회 전국품바명인전

2026년 6월 18일(목) 오후 6시~

전주풍남문화광장

주 최 | (사)전북문화진흥원
 주 관 | 전주매일신문사
 후 원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문의전화 | 전주매일신문 업무국 063) 288-9700

본 위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됩니다.